

통합청주시/상당구(上黨區)

낭성면 이목리 이정사비석(琅城面 梨木里 梨亭祠碑石)



낭성면 이목리 이정사 밑에 마을 정자옆에 자리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 애국자인 소당(素堂) 김제환(金濟煥, 1876~1916) 그의 동생 김성환(金成煥, 1875~1958)의 유허비 입니다. 이목리 마을 쉼터 옆에 자리하고 있다.

김제환(金濟煥, 1867. 10. 20.~1916. 10. 5.)은 충청북도 청주군 산내이상면(山內二上面) 이목정리(梨木亭里) 출신으로 일제 침략에 항거하고 단식 순절한 인물이다. 자는 문도(文道), 호는 소당(素堂)이며, 본관은 김해(金海)로 일제강점기 청주의 '백이숙제(伯夷叔齊)'로 칭송받았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國權)이 상실되자 고향에서 호적 등록을 거부하고 이른바 '경절(慶節)'에 일장기를 달지 않으며 납세 및 부역 등을 거절하는 등 항일투쟁을 하였다. 1913년 2월 배일항거운동(排日抗拒運動)으로 일본헌병에 체포되었으나 단식투쟁으로 동년 3월에 풀려났다. 5월 청원군(淸原郡) 오창면(梧倉面) 이산리(里山里)에서 함께 공부했던 변영인(卞榮仁), 신영태(申榮泰), 신학석(申學錫), 이종만(李鍾萬) 등과 '성산대강회(星山大講會)'를 개최하여 일제에 항거할 것을 주장하다가 일본 경찰에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조선총독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에게 '내가 죽으면 큰 벼락불이 되어 너희 종류를 씨도 남기지 않겠다.'는 항일 유서를 송부한 후 인근 산속에서 단식·순절하였다. 남긴 유고로는 선생의 문하생인 변영인, 신태구, 신천석, 이종만 등이 편집해 1950년 대전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시문집인 '소당선생문집'이 있다.

문집의 부록에는 선생을 청주의 '백이숙제(伯夷叔齊)'로 소개한 일제 강점기 신문기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묘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인경리 산 50-2번지에 있다.



photo by bluesea

소당 김제환의 유허비입니다.



photo by bluesea

정당 김성환의 유허비입니다.

김제환과 동생 정당 성환(成煥)은 청주 지역의 유생으로써 당시 청주군 산외일면 비상리와 산내이상면 문박리에서 각각 서당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일합방의 부당성 등 교육운동과 배일사상(排日思想)을 펼쳤다.



photo by bluesea



photo by bluesea



photo by bluesea



photo by bluesea



photo by bluesea



photo by bluesea



정의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독립운동가, 김제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0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50년 김제환의 문인 신천석(申天錫)·이종만(李鍾萬)·변영인(卞榮寅)·신태구(申泰求)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신천석·이종만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9권 5책. 활자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권수에 목록이 있고, 권1·2에 부(賦) 1편, 시 253수, 권3·4에 서(書) 85편, 권5·6에 잡저 38편, 권7에 기(記) 4편, 서(序) 3편, 발(跋) 6편, 명(銘) 2편, 혼서(昏書) 4편, 고축문(告祝文) 4편, 제문 1편, 권8에 사실기(事實記) 3편, 묘지명 2편, 묘표 5편, 행장 11편, 전(傳) 2편, 권9에 부록으로 묘표·묘지·진상찬(眞像贊)·유사·만사·증시(贈詩)·세계·신문기사전재(新聞記事轉載)·발문·통문(通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賦)와 시에는 우국충정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많다. 부의 「애해동부(哀海東賦)」는 못된 이웃 나라와 접했기에 임진왜란 이후 수난의 역사가 되풀이되었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시의 「옥중작(獄中作)」·「출옥작(出獄作)」 등도 망국의 울분을 토로한 내용이다. 이 밖에 「형화(螢火)」·「원소(園蔬)」·「맥(麥)」·「국(菊)」 등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읊은 시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서(書) 가운데 스승 박문호(朴文鎬)에게 보낸 「상호산선생문목(上壺山先生問目)」과 최익현(崔益鉉)에게 보낸 「상최면암문목(上崔勉菴問目)」은 상례(喪禮)에 관한 문답이다. 그밖에 서(書)는 주로 제자들의 문목에 답한 것으로, 「답김치원문목(答金樞遠問目)」에서는 『대학』의明德(明德)에 관한 이기변(理氣辨) 등 성리학적인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다.

잡저는 편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양하다. 「쇄록(瑣錄)」은 일상생활 중 학문적인 문제에 관해 보고들은 잡다한 내용들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소학변의(小學辨疑)」는 『소학』의 속중·영조 어제서(御製序) 및 편차(編次) 등을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규명한 것이다.

「농악설(農樂說)」은 농악이 저속화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강구연월(康衢煙月: 태평한 시대의 변화한 거리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구가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을 주장한 글이다. 특히 농악의 여러 가지 의식(儀式) 내용과 장식류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참고 자료가 된다. 「술지(述志)」는 항일 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출옥하면서 자신의 변함없는 소지(素志)를 기록한 글로, 저자의 항일 사상을 엿볼 수 있다.